

'사순절'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5가지

기독일보 국제부 장소피아 기자 (sophia@cdaily.co.kr)

입력 2017. 03. 06 05:50 | 수정 2017. 03. 06 06:53

교회 절기는 아니었지만...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어

[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봄은 단순히 꽃과 따뜻한 계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독교들에게 오히려 엄숙하게 명상을 하는 기간이 있다.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한다.

부활절 주일 전까지 40 일의 기간을 일컫는 사순절은, '렌켄(lenten)'이란 고대 영어에서 파생되었으며, 의미는 '봄'이다. 이것은 보통 무언가를 포기할 때 사용한 말이었다.

사순절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관행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다. 다음은 성스러운 계절에 관한 다섯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다.

1. 기원(Origins)

사순절에는 복잡한 역사가 있다. 4 세기 전까지 구체적인 교회 절기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초기 교회의 금식과 참회의 의식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

2013 년 노트르담 대학의 예술과 문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루소 교수는 한 학술논문에서 "사순절은 점진적인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활절 이전 금식은 역사가 오래되고 널리 퍼진 것처럼 보이지만, 금식의 기간은 장소와 세대에 따라 크게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40 일 사순절에 대한 확실하고 명백한 최초의 증거는 니케아 공회 이후 나타났다. 이것을 볼 때, 사순절과 초기 부활절 전 짧은 금식 기간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2. 동 서양 교회의 다른 타임라인(시간대)

사순절은 동 서양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교회력(典禮曆年)에서 교회마다 그 구체적인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양 교회에서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6 주 반전인 재의 수요일에 시작되어 부활절 토요일 자정에 끝이 난다. 반면 동양 교회에서 사순절은 부활절 전 7 주전 월요일에 시작해 부활절 전 금요일에 끝이 난다.

3. 정확히 40 일의 기간이 아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 일간 금식하신 것을 비추어 종종 40 일의 기간이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순절 40 일 기간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40 일의 기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은 사순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에서 웹 사이트를 통해 주일에 금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USCCB 는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행하는 금식과 사순절 매주 금요일에 행하는 금식을 제외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회개의 날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4. 재의 상징성

서양 교회의 경우,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이때 예배자의 이마에 재를 십자가 모양으로 긋는 의식이 진행된다.

이 의식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유한성과 참회이다. 이때 재는 주로 지난 해 종료주일에 사용한 나뭇가지를 태워 준비한다. 가톨릭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의식은 인간의 유한성과 회개의 필요성을 상징한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은 짧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5. 사순절과 맥도날드의 피쉬버거(Filet-O-Fish)의 유래

사순절 관행에 사탕과 고기 같은 것을 먹지 않는 관행이 사회 문화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으로 미국 대중이 널리 즐기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맥도날드의 피쉬버거(Filet-O-Fish)이다.

금요일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전통적 가톨릭 관행에서 맥도날드의 피쉬버거가 나오게 되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네티 맥도날드 식당의 소유주인 루 그로엔(Lou Groen)은 1962 년 처음 피쉬버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의 이웃 주민들이 대부분 가톨릭 신자였고,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버거를 만들었다.

고기를 대체한 패트를 넣은 버거를 준비하던 맥도날드 대표 레이 크록은 "그가 피쉬버거를 만들어 본부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후 맥도날드에서 그로엔의 피쉬 버거를 채택했으며, 이후 고기 대신 파인애플을 구워 만든 홀라 버거를 생산했다. 그러나 피쉬 버거가 홀라 버거보다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 글=크리스천포스트 칼럼니스트 마이클 그리보스키

출처 :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사순절에-관한-흥미로운-사실-5-가지-74691.html>